

새해의 결심

이 나이에 새해라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는 것이 유별스러운지도 모른다. 특히나 이민사회의 대부분은 자영업이나 주급생활이므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생활들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변화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도달할 목적지는 아니지 않는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24 시간이고, 지난해와 새해가 똑같은 365 일이다. 하지만 성공한 어떤 이는 하루를 25 시간으로 사용하고, 실패한 어떤 이는 하루를 23 시간으로 사용하는 차이이다.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변하고 그 오늘 속의 내가 변하기 때문이다.

새해 결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다. 살면서 해마다 많은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두사미, 유아무야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으니 나이살이나 먹어 지키지 못할 결심은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작심삼일은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이다. 결의를 실천하기 힘든 이유는 그 결심의 대부분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시우라 쇼이치 교수는 ‘습관을 바꾸는 일은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작심, 즉 마음을 먹는다고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방식은 결의가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안된다. 지키지 못했다고 좌절하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멈출 것을 염려하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실천하겠다’고 한다. ‘내일부터’의 결의는 마음의 위안일 뿐이다. 지금 당장부터 연습을 시작하라.” 새해마다 애연가들이 실패하는 금연도 ‘내일부터 피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늘만이라도 피우지 않겠다.’의 지금 당장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작심삼일이든, 삼십일이든, 이번 새해에는 무슨 결심을 할까?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계획도 없는 것일까? 지금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았다. 그리고 일주일 시간표를 적어 보았다. 나름대로 바쁘게 산다고 살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시간을 사용한게 아닐까? 타성에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젓은 나의 시간들은 '미래의 나 자신'에게, 아니 '임종 직전의 나 자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것 같다. 이곳 이민 생활은 <일주일살이> 이므로 일주일을 연결하면 일년이 지나간다. 나의 주요 생활은 누구나처럼 첫째가 돈버는 일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가 내 스스로 정한 <돈버는 업무 시간>이다. 혼자 운영하는 회사이니 누가 무어라 할 사람도 없지만 내 스스로 지킬려고 한다. 그 시간동안에는 가능한 한 돈버는 일만 할려고 한다. 굳이 토요일은 다를 수 있다. 일주일동안 읽은 책을 정리하고 칼럼쓰고, 광고 시안 수정하고, 색소폰 한시간 불고, Buyer 상담이 잡혀 있으면 상담하는 일로 보낸다. 평일 낮시간은 바쁘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객을 찾아 가기도 한다. 상담이 하루에 3건만 있어도 점심을 걸러야 할 정도이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새해에는 많이 움직여야 하겠다. 현장을 좀더 방문하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전화하고 상담할 생각이다. 두번째는 책 읽기와 글쓰기다. 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 읽기가 벅차다. 읽는 것은 어찌어찌 읽겠는데 읽고 난 책을 기록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매주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 내용을 생각해야 하는데, 토요일 한두시간 책상에 앉았다고 해서 글이 써지지 않는다. 워낙 밑천이 짧고 부족한 사람인지라 일주일 내내 머리 한구석에서는 칼럼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칼럼을 계속 쓰는 이유는 <가난한 아빠의 유산>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제외하고라도 항상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 좋아서이다. 한줄이라도 글다운 글을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즐기는 것이다. 그럴려면 책읽기를 게을리 하면 안되는데, 스스로가 게으르다. 내가 읽는 책들은 사무실, 화장실, 침실, 거실소파 등에서 너권이 흩어져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만 있지, 자신과 안일한 타협을 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정독할 책과 습독할 책을 구분하여 자신에게 좀더 엄격해야 하겠다. 세째는 건강관리인데 전혀 내팽겨친 상태다. 한때는 퇴근후 곧바로 헬스클럽을 갔었는데 저녁 시간들이 짝 차 있다는 핑계로 작년 가을부터 안가는 것이다. 월요일 저녁은 색소폰 배우는 시간이고, 화요일, 금요일 저녁은 아내 가게를 도와주어야 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와 교회 도서실 당번이고, 목요일은 야간상담 하는 날이고, 토요일 저녁은 일주일치 시장도 봐야 하고, 대부분의 이웃들 모임들이 모여있는 날이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라 산책과 교회일 이외에는 온전히 쉬어야 한다는 이유같지 않는 핑계를 댈다. 그러면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저녁먹고 운동하러 가면 될텐데, 밥 먹고는 운동하지 않는다는 양반습성(?)으로 둘러댄다. 사실은 저녁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한국 오락프로를 보는 즐거움 때문이다. TV 를 보지 않으려고 TV 를 없앴는데, 요즈음은 컴퓨터로 모든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볼 수 있으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새해에는 일주일에 보는 TV 프로를 4 시간이하로 줄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색소폰 부는 시간인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게으름을 피운다. 집에서는 못부니까 늦은 가을날 공원에 나갔다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2 주일을 고생한 이후로 해가 길어지는 봄날까지는 공원에 안가기로 했다. 그러니 고작 일주일에 두시간 정도 연습을 하니 어느 세월에.... 하루에 한시간씩은 연습을 해야 할텐데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하나 고민이다. 아내에게 색소폰을 들려주기로 한 날은 이제 석달도 채 안남았는데 말이다. 결론은 일주일의 조그만 변화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많이 움직여야 하고, 시간도둑들을 잡아서 습관처럼 굳어진 시간들을 새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새해 결심이다.